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관리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문화전당 경계부 가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etting Direction of Managing the Building Facade on Street

- With the Road on Border of Asian Culture Center in Gwangju -

박성진*

Park, Sung-Jin

김인호**

Kim, In-Ho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architectural designers' views on the correlations between components and contextual principle of the roadside building facade with the roadside building facade on the border of Asian Culture Center in Gwangju which is expected to undergo a great change by public policies. For setting direction of the roadside building management at the region examined, height of facade, advertisement/signboard, security of continuity through surface pattern management, nodes building, array of height by story, awning/arcade and locality of advertisement/signboard should be induced to design with locality and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with silhouette, window and external colors is needed for discrimination from other cities. Regarding the realization method important thing was found tha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guidelines, architectural aesthetics of the pre-hearing enhancement,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n additional landscape screening system, incentive schemes, landscape designation of landscape zone was found to be a major realization system.

Keywords : Building on Street, Facade Characteristics, Contextual Composition Principle, Feasibility Means

주요어 :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 특성, 맥락적 구성원리, 실현수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에 있어 도시의 이미지는 도시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종합체적 성격으로 그들이 함께 어울려 연출되는 것이다. 하나의 이미지이다. 때문에 도시 이미지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는 도시경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로경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가로와 가로변 건축물들간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요소 중에서 가로변의 건축물의 파사드 구성은 그 가로경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원도심 상업가로의 경우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시내부에서 일정한 공간구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들 역시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맥락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공동화 현상이 문제되고 있는 지방 원도심의 경우 가로구조의 골격이 소멸지화/불규칙하여 스케일상의 부조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유행성이 지배적이거나, 지나친 경제성의 추구로 인하여 몰개성화된 범용도의 건축물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간판이나 광고 시설물 같은 외부 치장물들의 처리가 무질서와 전체로서의 부분이 아닌 자기완결적 건축 성향이 강한 실정으로 이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상세한 관리 방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근 경관법을 필두로 각종 법적규제, 유도방법과 같은 행정이 주체가 된 경관개선책이 속속들이 나와 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주로 건축제어요소 중 건축 볼륨을 제한하는 부분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뿐 파사드 등과 관련된 경관의 상세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설계의 경우 그 지역의 설계를 담당하는 사무소들과의 관련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의 실마리와 관련한 인식구조 연구에 있어 그 대상의 세분화 및 확대가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들의 구성요소간의 맥락적 구성 관계에 관한 해당 지역의 설계 실무자들의 인식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책으로 대변화가 예정된 전이지역에 위치하여 경계부 가로변 건축물의 내외적 변화가 예

*정회원(주저자),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Post-Doc

**정회원(교신저자),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1-D00036]

상되고, 선택적 적용에 의한 맥락적 관리가 필요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 건립 예정지 경계부의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문화전당의 열린공간적 성격을 강화하고, 적절한 공간의 규정을 위해 가로변 건축물들의 파사드 구성요소와 맥락적 구성원리 간의 관계성에 대한 해당 지역 건축설계 실무자들의 시각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문화전당 경계부 건축물 경관관리에 있어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구성요소와 선택적 적용에 따른 맥락적 구성원리간의 영향관계 분석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광주광역시 문화전당 경계부의 가로변 건축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구성요소 현황 파악에 있어 가로변의 건축물들은 연속된 입면에 의해 형성된 면적 공간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다음의 항목들 건축물의 형태적 요소(층수, 매스형태, 지붕형태, 저층부와 상층부 분리, 벽면선, 진입방식), 건축물의 외피적 요소(건축물의 용도(전체, 1층부), 건축물의 파사드(입면형태, 입면면패턴, 창호설치방식, 점두형식, 1층부와 상층부 분리, 출입구 형태 및 위치), 외벽의 소재 및 색채, 부속물(간판, 차양, 입면장식요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들의 구성요소들과 선택적 적용에 의한 맥락을 고려한 설계의 구성원리와 실현 이미지, 방법 및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 및 평가항목은 일반적인 가로의 맥락화와 단일건축물의 파사드가 아닌 전이적 지역의 특정대상지에 대한 선택적 적용과 공간한정에 있어 위요성 또는 경계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구성원리와 연속된 가로의 가로벽 개념에서 인지되고, 파악되어야 하는 건축물의 시각적 요소들을 중점으로 하여 관련 선행참고문헌을 참조로 재구성하였다.

조사대상 가로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역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이들의 건축에 많은 관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가 아닌 해당 지역의 설계 실무자들의 인식구조에 파악을 하고자 설문대상을 광주광역시 내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 중인 건축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표 1. 설문조사내용

구분	평가항목	분석
일반사항	성별, 나이, 근무기간	빈도분석
전체만족도	전체만족도	평균값 분석 회귀 분석
맥락적 구성원리	통일성, 다양성, 동일성, 개별성, 연속성	
파사드 구성 요소	가로변 건축물의 형태적 요소 부지의 크기/형상, 실루엣, 인동간격, 층수, 벽면선, 층별 높이정렬, 매스 형태, 지붕 형태, 가각부 건축물 가로변 건축물의 외피적 요소 건축물 용도, 입면형태, 입면패턴, 입면형상, 창호설치 방식, 1층/상층 분리, 점두형식, 주출입구 형태/위치, 장식요소, 창문/출입구/기타 외관의 비례, 외벽 마감재료 및 색채, 광고/간판, 차양/아케이드, 전면부 조정처리	
실현수단	실현이미지, 실현방법, 실현제도	평균값분석

마지막으로 현장조사는 사진 촬영과 조사시트 작성으로 2010년 10월 5일-15일까지 10일간 이루어졌으며, 건축설계 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0년 1월 1개월간 직접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수행되었다.

분석은 빈도분석, 평균값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분석도구로는 SPSS 14.0을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가로경관과 가로변 건축물의 구성

도시건축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로변 건축물의 디자인은 전체와 부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통일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감과 다양성의 관계에 대하여 리차드

표 2. 조사대상 가로변 건축물의 파사드의 위치 및 현황 사진

조사대상가로 위치	구분	조사대상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 사진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Richard Hedman)과 앤드류(Andrew Jaszewski)는 맥락을 고려한 설계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과 새로이 제안된 계획이 시각적으로 충분히 연계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 즉, 맥락을 고려한 설계는 주로 주변 환경과의 시각적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며, 새 건물은 주변 환경이 지닌 특성을 강화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일관성을 가져다주는 기본 패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설계의 다양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맥락적 설계에서도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적용 방법을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지인 특정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한 주변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공정책으로 대변화가 예정된 전이지역의 경우는 선택적 적용의 하나로 정체성과 연속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 “도시는 그 도시답다”라는 동일성과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고 더 낫다”라는 개별성으로 설명하였으며, 연속성에 대해서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이든 변함이 없는 것으로 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구성요소들의 구성원리를 맥락적 설계를 위한 일반적 구성원리인 통일성과 다양성 그리고 공공정책에 의해 변화가 예정된 전이지역에서의 선택적 적용과 관련한 동일성, 개별성, 연속성의 5개 구성원리를 적용하였다.

2. 가로변 건축물의 특성

가로공간은 공간자체의 질 뿐만아니라 공간표면의 색채, 질감, 기타 세부요소도 도시환경의 시각예술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²⁾ 그래서 연속된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는 가로공간을 에워싸며 가로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1차적 요소이며, 가로공간의 특성과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내 가로에서는 가로변 건축물의 형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호한 가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로와 건물에 관계된 일정의 컨트롤을 하게 된다.

이에 그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 건축물의 형태적 규제 및 유도, 건축물의 외피적 규제와 유도로 구분하는데, 이중 건축물의 형태와 관련 부지크기 및 형상, 건축물의 높이, 지붕선(추녀)높이, 벽면선 지정, 지붕형상, 가로의 결절점을 다루었으며, 건축물의 외피와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파사드, 외벽의 색채와 소재, 부속물 등의 디자인을 다루고 이다.³⁾ 그리고 상

업가로 즉 상업가가 주를 이루는 경우의 가로에서는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파사드의 컨트롤 요소와 관련하여 가로발생유형과 형식, 업종, 상가발생유형, 점두형식 등을 추가적 고려사항으로 다루고 있다.⁴⁾

또한 맥락적 설계에서의 변화감이 있으면서 동일성을 확보하는 통일감의 판단기준으로서 설계 연계요소들을 건물의 실루엣, 건물사이의 간격, 건축선으로 부터의 후퇴, 창문, 출입구, 베이 등의 기타 외관상 특징들의 비례, 건물형태의 매스처리, 현관통로의 위치와 그 처리, 외장재의 마감처리와 질감, 매스처리와 장식요소에 의한 음영패턴, 건물의 스케일, 건축 양식, 조경처리를 그 제어요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⁵⁾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에 있어 제어되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 건축물 형태 및 외피적 제어요소들을 추출하고, 재정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III. 조사대상지의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특징 및 현황

1. 조사대상지역 현황

본 연구의 대상지인 문화전당 일대는 광주광역시 원도심의 중심공간으로 광주의 구심점 역할을 한 장소이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지로서 역사적 공간이자 상징적 공간이다.

이 부지에 들어서는 문화전당의 기본건축개념은 첫째,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광주의 역사성을 부각하고자 기존의 역사적 건축물을 중심으로 전당의 새로운 시설물을 기존 지표면보다 낮게 배치하여 역사적 건물을 기념비화 하였고, 지하를 굴착한 뒤 건물이 들어서는 지상공원화, 지하건물의 건축양식을 채용하였다. 그리고 열린 시민 도시공원 및 소통이 원활한 마당과 같은 광장 조성을 목표로 기존 도시와 연계되어 약 100,000 m²의 시민공원계획과 부지 내 한 가운데 아시아문화광장(5,100 m²)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배치를 계획하여 기존의 5·18 민주화광장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 축제 시민참여 행사 등을 수용할 예정이다.⁶⁾

때문에 문화전당 사업부지는 사용승인 후 주변 경계부 가로변의 연속된 건축물들에 의해 구획된 경성공간으로서의 닫힌공간 즉, 폐쇄적 성격과 구심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광장의 요소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기에 이들을 에워싸는 수직적 역할을 하게 되는 물리적 요소인 가로변 건축물들의 파사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1) Hedman, R., & Jaszewski, A.(2002). 도시설계의 기본원리(이석환 외 5인 역). 서울: 태림문화사. 14-15.

2) Carmona, M. (2009). 도시설계 (강홍빈 외 6인 역). 서울: 대가. (원저 2003 출판). 257-269.

3) 송대호 · 윤종국(2007). 도시건축 경관디자인론. 부산: 도서출판 PAL. 251-257.

4) 박상현 · 우신구(2008). 상업화된 주거지 상점 파사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계획논문집, 24(1), 99-108

5) Hedman, R., & Jaszewski, A. (2002). 도시설계의 기본원리(이석환 외 5인 역). 서울: 태림문화사. 21-23.

6) 문화체육관광부(2008). 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 수립 연구(연구보고서 No. 2008-12).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49-51.

조사대상 지역은 현재 구도심 지역으로 주로 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방화지구로 지정되어있다. 그러나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주변의 금남로와 충장로 등 일부 가로를 제외하고는 가로주변의 건축물들이 노후화되어 경관상 쾌적하지 못하며, 건물들의 간판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럽고, 가로시설물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의 모습을 만들어 주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축물이 낮아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며, 일부 지역에 부분적으로 고층 건축물이 우뚝서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가로변 건축물들은 새로이 들어설 광장적 요소의 대규모 시설물들과 연계한 자발적 용도/기능의 변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조사대상 가로변 건축물들의 구성현황

조사대상지역의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요소별 현황조사 결과를 조사대상 구간별 차이를 보이는 항목과 유사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간별로 차이를 보이는 조사항목 중 층수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5층 이하(88.2%)의 소규모 건축물로 구성되었으나, B구간의 경우는 2층이하의 저층건축물, A와 C구간은 3·4층의 건축물, D구간은 5층 이상의 건축물이 주를 이루며 규모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존의 문화전당 일대 중심변화가인 금남로, 충장로와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전체적으로 전용건축물(44.3%), 범용건축물(45.9%)이 주를 이루었고, B·C구간의 경우 2층이하의 전용건축물, A·D구간의 경우는 3-5층이상의 범용건축물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건축물의 1층부 용도는 전체적으로 각종판매시설(27.9%), 음식점(21.3%), 광고/인쇄업(18.0%)의 순으로 그 분포도가 높았으나 C구간은 광고/인쇄업과 음식점, A구간은 음식점, B·D구간은 판매시설이 많이 나타났다.

창호의 설치 유형은 전체적으로 정형(47.5%)과 수평형(24.6%)이 대부분 이었고, 특히 정형의 경우 A·C구간, 수평형의 경우 B·D구간에서 많이 나타났다.

점두형식은 전체적으로 투명형(57.4%), 반투명형(23.0%), 폐쇄형(18.0%)의 분포를 보였는데 투명형의 경우는 판매시설이 많은 B·D구간, 반투명형은 음식점과 관련하여 A·C구간, 폐쇄형은 인쇄/광고업과 관련하여 C구간에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로구간별로 큰 차이가 없는 항목들 중 준공관련 시기적 상황과 경제성과 관련하여 벽면선 후퇴의 건축물은 거의 없었으며, 가로에서의 동일레벨 진입(93.4%)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지붕의 경우 평지붕(88.5%)이 주를 이루고, 매스의 형태는 육면체의 기본형 매스(47.5%)가 가장 많았고, 일부 코너형(9.8%), 상부충단형(9.8%), 박

표 3. 조사대상지역의 파사드 구성요소별 현황분석(%)

층수	1층~2층			3층~4층			5층이상			
	45.7(B)			31.0(A,C)			23.3(D)			
벽면 후퇴	기본형		전면후퇴	저층부 후퇴		상층부 후퇴	부분 후퇴			
	85.2		14.8	0		0	1.6			
진입 방식	동일레벨 진입			상승진입			하강진입			
	93.4			6.6			0			
지붕 형태	평지붕		박공지붕		모임지붕		눈썹지붕			
	88.5		8.2		1.6		1.6			
매스 형태	기본형		박공형		코너박스형		매스 부가형		기본(계단)	
	47.5		8.2		9.8		4.9		8.2	
	상부 충단형		기본(피로티)		박공(피로티)		곡면형		기본(증축)	
	9.8		1.6		1.6		1.6		6.6	
전체 용도	전용			준전용			범용			
	44.3(B,C)			9.8			45.9(A,D)			
1층 용도	인쇄	웨딩	의상	의료	음식점	판매	은행	기타		
	18.0 (C)	9.8	6.6	6.6	21.3 (A,C)	27.9 (B,D)	3.3	6.6		
입면 형태	박스형		박공측면		박스(계단)		박스(눈썹)		상부충단형	
	57.4		3.3		11.5		4.9		6.6	
	모임지붕형		박스(증축)		박공(피로티)		박스(피로티)		기타(혼합)	
	1.6		6.6		1.6		1.6		6.6	
입면 패턴	반복			대칭			부정형			
	27.9			47.5			6.6			
입면 표면	평면형	수평요철	수직요철	면요철	격자요철	불규칙요철				
	68.9	13.1	11.5	4.9	1.6	1.6				
창호 설치	정형	수평형	수직형	피막형	부정형	수평+수직				
	47.5(A,C)	24.6(B,D)	0	4.9	1.6	3.3				
점두 형식	개방형		투명형	반투명형		폐쇄형	피로티형			
	0		57.4(B,D)	23.0(A)		18.0(C)	1.6			
1층 분리	무분리			마감재 분리			간판일체분리			
	62.3			14.8			6.6			
출입구 형태	평면형		함몰형		돌출형		내부형			
	63.9		6.6		1.6		9.8			
출입구 위치	중앙		가장자리		측면		1층안			
	6.6		47.5		18.0		9.8			
장식	장식없음		출입구장식		기둥장식		차양		부가장식	
	41.0		4.9		19.7		6.6		1.6	
	간판일체		구조물장식		구조체장식		면장식		창호장식	
	4.9		1.6		8.2		3.3		3.3	
마감	타일		석재		도장		벽돌		판넬	
	34.4		18.0		18.0		6.6		8.2	
	커튼월		외단열		목재		금속재		간판	
	4.9		1.6		3.3		1.6		3.3	
차양	있음					없음				
	27.9					72.1				
색채	R	YR	Y	G Y	G	BG	B	PB	P	
	6.6	16.4	6.6	29.5	18.0	9.8	3.3	3.3	0	
	상(명도)			중(명도)			하(명도)			
	70.5			18.0			4.9			
	상(채도)			중(채도)			하(채도)			
	6.6			16.4			70.5			
간판	가로형	문자형	창문형		가로/창문	가로/문자	가로/창문/문자			
	49.2	13.1	1.6		23	13.1	1.6			

※ 조사항목에서 ()는 각 유형의 구성이 높은 구간을 표시한 것임.

공형(8.2%), 계단실에 의한 기본형 변형 형태(8.2%)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면 형태는 매스형태에 기인한 박스형(57.4%)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 계단실에 의한 박스변형(11.5%), 박스형의 증축(6.6%), 상부층단형(6.6%) 등의 유형이 일부 분포하였고 입면의 표면은 대부분 광고/간판의 부착을 고려한 범용의 건축물이 많아 단조로운 이미지의 평면(68.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평요철(13.1%), 수직요철(11.6%)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면의 패턴은 대칭(47.5%)과 반복(27.9%), 1층과 상층의 분리하지 않은 경우(62.3%)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마감재에 의한 분리(14.8%)와 간판에 의한 분리(6.6%)의 유형이 보였다.

출입구는 평면형(63.9%)의 가장자리 위치(47.5%)가 대부분이었고, 장식의 경우는 없는 경우(41.0%)가 대부분이며, 일부 기존입면 1층부 기둥 마감재 변경에 의한 방식(19.7%)과 구조체의 장식화 유형(8.2%) 등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부마감재는 준공시기가 오래된 경우는 타일(34.4%)과 도장(18.0%), 준공시기가 최근인 경우는 석재(18.0%)의 사용이 많았고, 주조색 색채의 경우는 YR-G계열(70.5%), 고명도(70.5%) 저채도(70.5%)의 색채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일반적 건축외벽 주조색채 기준에 준하는 배경적 색채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차양의 경우는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았고, 간판은 가로형 간판 사용 파사드(49.2%)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로형과 창문형의 혼용(23.0%), 문자형(13.1%), 가로형과 문자형(13.1%)의 혼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문화전당 사업부지의 매입 및 철거 이후 경계부 가로변은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유사한 구성 현황을 보였다. 하지만 층수, 전체용도, 1층 용도, 창호설치 방식, 점두형식들의 경우 구간별로 각기 다른 구성현황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조사대상 가로들은 문화전당을 둘러싸게 될 것이고, 문화전당이라는 공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간의 가로가 통합화 되어 공간을 한정해야 점에 있어 하나의 저해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 구간별 가로 이면 및 주변구역의 특성에 연관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문화전당과 관련하여 아니면 보조적 역할로서의 특성으로의 변환이 예상됨과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조사대상지역의 가로변 건축물의 파사드 구성 요소와 맥락구성 간의 평가분석

1. 설문개요

본 연구는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들의 구성요소들과 맥락적 구성원리간의 관계성에 대한 해당 지역 건축설계 실무자들의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 설문조사 대상자의 구성

설문조사의 평가항목의 구성은 피험자의 일반적 사항 3문항, 해당지역 가로변 건축물들의 전체 만족도 1문항, 맥락적 구성원리 5문항,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물리적 구성요소 관련 27문항, 가로변 건축물 관리 이미지, 방법, 제도 관련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내에서 업무신고를 하고 현재 영업 중에 있는 건축사무소 근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험자 집단의 구성 특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2. 조사대상지역 파사드의 구성요소/맥락적 구성원리 만족도 분석

조사대상지역의 가로변 건축물들의 맥락적 구성원리와 파사드 구성요소별 만족도에 대한 각 항목별 요소들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 지역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구성요소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이 역시 모든 항목에서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값 3.0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그림 2. 조사대상지역의 파사드 구성요소의 만족도 분석

특히, 이들 부정적인 결과 중에서도 다양한 유형, 조합, 무분별한 부착 위치로 구성된 광고/간판(1.61), 특정범위의 색채의 집중적 사용으로 인한 획일화된 외벽색채(2.10), 주목성 위주의 간헐적 사용으로 인해 연속성이 결여된 차양/아케이드(2.10), 장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기완결적 장식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장식요소(2.12), 박스형 입면형태, 대칭형 패턴, 평면형 표면이 집중적으로 사용됨으로 인한 물개성화된 입면형태, 입면패턴, 표면형상(2.19), 건축물의 노후도 및 유행성의 지배에 의해 통합성이 결여된 마감재료, 창호형태(2.21)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값을 보였다.

다음으로 맥락적 구성원리들에 대한 평가에서는 5개 항목 모두 5점 척도 기준에서 평균값 3.0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통일성(2.08), 동일성(2.22), 개별성(2.21), 연속성(2.19)의 경우 다양성(2.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지역의 가로변 건축물들의 경우 원도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통일성과 연속성의 경우 부족물들의 무질서와 과도한 장식요소의 주목성에 의한 자기완결적 성향, 유행성의 지배로 인한 재료와 창호 형태의 통합성 결여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일성과 개별성은 건축물의 입면구성과 관련하여 경제성에 의한 평이한 동일 디자인 패턴이 집중적으로 반복됨으로 인해 물개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점이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여 정체성 결여가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조사대상지역의 파사드 구성원리의 만족도 분석

3. 조사대상지역 파사드의 구성요소, 맥락적 구성원리, 전체 만족도의 영향력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의 구성요소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맥락적 구성원리들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모형과 조사대상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맥락적 구성원리를 독립변수로 한 연구모형에 대한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단계입력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지역의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와 맥락적 구성원리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일성에는 광고간판($t=5.719$, $p=.000$), 창호형태($t=3.823$, $p=.000$), 각각부 건축물($t=2.981$, $p=.000$)이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표면형상($t=-2.176$, $p=.000$)은 종속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들의 베타계수로 각각의 영향력을 비

교해보면, 광고간판($\beta=0.470$), 창호형태($\beta=0.425$), 각각부 건축물($\beta=0.275$), 입면표면형상($\beta=-0.260$)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간판과 창호형태 요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 파사드들에서 무질서하고 다양한 광고/간판과 유행성의 지배에 의해 가로 구간별로 사용 비율의 차이가 큰 창호형태의 통합적 연속성 확보, 각각부 건축물들의 맥락성을 고려한 디자인의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표면형상의 경우 일부 개별 건축물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의 자기완결적 성향으로 인해 통일성에 저해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양성의 경우는 창호형태($t=2.034$, $p=.045$), 차양/아케이드($t=2.572$, $p=.012$), 건축물의 용도($t=2.188$, $p=.031$)가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베타계수로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창호형태($\beta=0.224$), 차양($\beta=0.262$), 건축물 용도($\beta=0.220$)의 순으로 나타났고, 장식적 요소로서 차양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입면 디자인에서 정형, 수평형 위주의 창호형태들

표 4. 조사대상지역의 파사드 구성요소와 구성원리간 영향력 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F	p	공선성통계량	
	B	Std. Error	Beta			공차한계	VIF
통일성	(Constant)	.112	.234		.479	.633	
	광고/간판	.493	.086	.470	5.719	.000	.850
	창호형태	.465	.122	.425	3.823	.000	.466
	가각부건축물	.298	.100	.275	2.981	.004	.677
	표면형상	-.252	.116	-.260	-2.176	.032	.403
R ² =.512, Adj-R ² =.489, F(p)=22.276(.000), Durbin-Watson=2.403							
다양성	(Constant)	.906	.297		3.048	.003	
	창호형태	.245	.120	.224	2.034	.045	.687
	차양아케이드	.272	.106	.262	2.572	.012	.800
	건축물용도	.219	.100	.220	2.188	.031	.826
R ² =.283, Adj-R ² =.258, F(p)=11.337(.000), Durbin-Watson=1.994							
동일성	(Constant)	-.168	.217		-.773	.441	
	가각부건축물	.363	.091	.325	3.980	.000	.693
	층별높이정렬	.286	.077	.297	3.729	.000	.728
	차양아케이드	.268	.090	.251	2.981	.004	.654
	공고간판	.173	.085	.161	2.032	.045	.742
R ² =.606, Adj-R ² =.588, F(p)=32.741(.000), Durbin-Watson=2.108							
개별성	(Constant)	.432	.289		1.496	.138	
	실루엣	.304	.117	.268	2.601	.011	.744
	창호형태	.280	.108	.259	2.584	.011	.788
	외벽색채	.220	.092	.226	2.386	.019	.885
R ² =.319, Adj-R ² =.296, F(p)=13.459(.000), Durbin-Watson=2.015							
연속성	(Constant)	.226	.250		.906	.367	
	층수	.343	.086	.349	3.981	.000	.842
	공고간판	.299	.094	.277	3.182	.002	.854
	입면패턴	.259	.088	.267	2.941	.004	.784
R ² =.443, Adj-R ² =.424, F(p)=22.79(.000), Durbin-Watson=1.922							

의 집중적 사용과 보행자를 고려한 차양/아케이드의 낮은 설치율로 인한 연속성에 의한 리듬감 결여 그리고 다양성과 혼잡성이 병행하는 건축물들의 용도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정체성과 관련한 것으로 동일성의 경우는 각각부 건축물($t=3.980$, $p=.000$), 층별높이정렬($t=3.729$, $p=.000$), 차양/아케이드($t=2.981$, $p=.004$), 광고/간판($t=2.032$, $p=.045$)이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베타계수로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각각부 건축물($\beta=0.325$), 층별높이정렬($\beta=0.297$), 차양($\beta=0.251$), 광고간판($\beta=0.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집화를 통한 동일성 확보와 관련해 지역/장소적 맥락을 고려한 대조기법으로 각각부의 건축물 관리와 저층부와 상층부의 분리개념으로 저층부의 층별높이, 차양/아케이드, 광고/간판에 대해 광장적 공간을 한정할 수 있는 위요성과 경계성 강화를 위한 지역성 있는 디자인으로 정렬하는 전체적이고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다음은 정체성과 관련된 개별성의 경우 실루엣($t=2.601$, $p=.011$), 창호형태($t=2.584$, $p=.011$), 외벽색채($t=2.386$, $p=.019$)가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베타계수로 각각의 영향력을 보면 실루엣($\beta=0.268$), 창호형태($\beta=0.259$), 외벽색채($\beta=0.226$)의 순으로 나타났고, 형태 요소인 실루엣과 입면패턴 주요구성요소인 창호형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타 도시와의 차별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속성 있는 리듬감 확보 차원에서 가로변 건축물의 층수, 매스, 지붕형태의 다양화, 가로 구간별로 다른 창호형태의 일관성 있는 통합에 의한 특화, 지역색 개발에 의한 건축물 색채 적용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맥락적 구성원리인 연속성의 경우는 층수($t=3.981$, $p=.000$), 광고/간판($t=3.182$, $p=.002$), 입면패턴($t=2.941$, $p=.004$)이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베타계수로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층수($\beta=0.349$), 광고간판($\beta=0.277$), 입면패턴($\beta=0.267$)의 순으로 나타났고, 형태적 요소인 층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로의 전체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전당의 규모를 고려한 가로 구간별로 규모의 차이가 있는 가로들에 대한 층수 제한에 있어 최고 및 최저 층수의 규모의 관리, 무질서하고 무정형한 광고/간판들의 통합화와 인접건축물간의 입면패턴 조화를 고려하여 연속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지역의 파사드의 전체만족도와 맥락적 구성원리간의 영향관계의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

전체만족도에는 연속성($t=5.690$, $p=.000$) 동일성($t=2.925$, $p=.004$), 개별성($t=2.265$, $p=.026$)이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베타계수로 각

표 5. 조사대상지역 파사드의 전체만족도/구성원리간 영향력 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F	p	공선성통계량	
	B	Std. Error	Beta			공차한계	VIF
전체만족도	(Constant)	.425	.195		2.176	.032	
	연속성	.465	.082	.499	5.690	.000	.644
	동일성	.227	.078	.243	2.925	.004	.715
	개별성	.174	.077	.179	2.265	.026	.791
	R2=.575, Adj-R2=.560, F(p)=38.751(.000), Durbin-Watson=2.149						

각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연속성($\beta=0.349$), 동일성($\beta=0.277$), 개별성($\beta=0.267$)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속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맥락적 설계에 있어 공공정책으로 대변화가 예견된 전이지역의 경우 정체성과 연속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배경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원도심적 특성이 강하고 광장적 성격이 강한 문화전당 경계부 가로의 경우 인간은 명확하게 설정된 개방감, 다시말해 열렸지만 경계가 뚜렷한 공간을 선호한다는 점⁷⁾에 따라 문화전당의 열린공간적 성격을 강화하고, 적절한 공간의 규정을 위해서는 주변 구조물의 연관성 있는 배열, 통합적 연속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대상가로가 원도심으로 혼란스럽고 무정형의 특성을 가진 것을 고려할때는 동일한 건축요소의 반복 또는 정형성의 강조를 통해 공간의 위요감 또는 명확한 경계성을 확보하여야한다는 점과 결부하여 분석할 수 있다.

즉 조사대상지역의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들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구성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전당 주변 가로들의 전체적인 위요감과 경계성의 강화를 위해 가로 구간별 파사드의 층수 차이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광고/간판에 대한 통합적 연속성의 확보, 입면패턴과 관련해서는 반복을 통한 연속성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부 건축물은 지역성이 반영된 대조적 기법의 적용과 층별높이정렬, 차양/아케이드, 광고/간판들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한 요소들의 군집화에 의한 동일성의 확보를 하여 전체 가로의 위요성과 경계성 강화하고, 정비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도시와의 차별성을 위한 개별성의 경우는 연속성 있는 리듬감과 관련하여 대부분 평지붕으로 구성된 현황에 대해 차별화된 지붕디자인의 유도를 통한 실루엣 형성과 일관성 있는 통합에 의한 창호형태의 지역적 특화, 문화전당의 장소성이 반영된 지역적 소재색 개발에 의한 외벽색채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Carmona, M. (2009). 도시설계 (강홍빈 외 6인 역). 서울: 대가. (원저 2003 출판). 257-269.

4. 조사대상지역 파사드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관리에 관한 분석

조사대상지역 파사드의 관리에 대한 실현이미지 및 수단에 관해 지역의 건축설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 개선을 위한 실현 이미지 인식도

그림 5.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 개선을 위한 실현방법 인식도

먼저 실현 이미지와 관련하여 필요 이미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본 결과 연속성(22.8%), 통일성(17.9%), 독창성(15.6%), 동일성(10.3%), 다양성(9.8%)의 이미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맥락적 구성원리 항목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실현수단과 관련한 조사대상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방법으로는 건축설계지침 등의 수립과 시행(23.7%), 시민교육 및 시민참여 활성화(18.0%), 건축미관심의 등 사전검토 강화(15.2%), 건축물규제 조례 및 경관협정(12.3%),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수립(11.4%)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그림 6.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 개선을 위한 실현제도 인식도

마지막으로 실현제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제도에 대한 의견분석 결과는 경관가이드라인 미관기준 심의제도(24.5%), 인센티브 제공(23.0%), 경관지구 지정(19.5%), 지구단위계획(15.5%) 등의 순으로 실리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원도심적 특성과 광장적 성격이 강한 문화전당의 신축으로 향후 경계부 가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에 대해 열린공간의 성격을 강화하고, 적절한 공간의 규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이 방향성을 찾고자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요성과 경계성 강화와 관련하여 연속성의 증대가 필요한데, 이는 문화전당 설계개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장기적으로 구간별 층수변화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최고 및 최저높이 제한, 광고/간판들의 정형성 강화를 통한 연속성 확보, 인접건축물들간의 입면패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상세계획 수립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이 반영한 요소들의 군집화에 의한 동일성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각각부 건축물은 대조적 기법으로서 문화전당의 장소성을 반영한 디자인 유도를 하여야 할 것이고, 층별높이정렬, 차양/아케이드, 광고/간판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경관특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성이 반영된 디자인의 차양 또는 아케이드의 연속적 설치를 통한 저층부와 상층부의 분리와 이들을 활용한 광고 및 간판의 정형화를 이루어 층별높이정렬의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상세계획수립을 통해 신축건축물들을 규제하여 건축물 자체를 통한 정렬된 이미지 구축을 하여 지역건축물다운 동일성을 확보하여야 할것이다.

셋째, 위요성과 경계성 강화로 인한 획일화 또는 단순화의 방지를 위해 연속성 있는 리듬감을 확보하여 타도시와의 차별성을 갖기 위한 개별성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지구단위 또는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신축건축물들의 지붕디자인 규제 및 유도를 병행하여, 가로변 실루엣과 창호형태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색채 및 문화전당의 장소성이 반영된 색채 개발과 보급을 통해 외벽색채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현 이미지, 방법,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본 결과 지역의 특정 가로변 건축물의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속성과 정체성에 관련한 이미지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또한 실현수단으로서 규제와 유도를 병행하는 내용으로 지역적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할 특정가로 및 지역에 대한 설계시 실무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상세계획 및 지침의 수립과 시행, 시민들의 가로변 건축물에 대한 공공재로서의 인식 증대와 관련한 경관협정 등의 활성화, 기존의 소규모 건축물들의 디자인 심의방식과 차별화된 상세계획 및 지침과 관련한 사전검토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실현제도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유도보다는 지역적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할 특정지역에 대한 추가적 심의제도 신설과 건축주의 사업성과 결부한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법적 장치로서의 경관지구 지정의 확

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공정책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전이지역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에 있어서 선택적 적용에 의한 맥락적 설계 및 관리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반인이 아닌 해당지역의 건축실무 설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일반화 부분에서 연구대상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이용자 개념의 일반인과 관리자 개념의 담당 관련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연구와 각 주체별 비교분석을 통한 공통 및 차이점을 파악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곽행구·송태갑 (2007).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경관관리 방안 (정책연구 No. 2007-6). 광주: 광주발전연구원.
2.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 수립 연구 (연구보고서 No. 2008-12).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3. 박상현·우신구 (2008). 상업화된 주거지 상점 파사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계획논문집, 24(1), 99-108
4. 송대호·윤종국 (2007). 도시건축 경관디자인론. 부산: 도서출판 PAL.
5. 이종성 (1992). 시지각적 접근방식에 의한 가로경관의 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6. 이현준 (2008). 상업지역 가로환경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부산.
7. 장용준 (1989). 가로변 저층상업건축물의 입면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8. Carmona, M. (2009). 도시설계 (강홍빈 외6인 역). 서울: 대가. (원저 2003 출판)
9. Hedman, R., & Jaszewski, A. (2002). 도시설계의 기본원리 (이석환 외5인 역). 서울, 태림문화사.

접수일(2011. 2. 25)
수정일(1차: 2011. 4. 6)
게재확정일(2011. 4. 20)